

과학 꿈나무들 무대…“무한상상 펼치자”

‘과학의 달’ 4월부터

각종 탐구대회 잇따라

동아리 활동·토론·발명 다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 움직임이 빨라졌다. 학부모총회에 참석, 담임교사와 인사하고 또래 엄마들과의 인맥을 쌓으며 유명 학원 정보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 됐다.

최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크게 늘면서 신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채워넣을 독서·동아리·봉사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까지 챙기느라 분주하다. 당장, 교육부를 비롯, 광주·전남교육청 등이 주최하는 과학 경진대회 등은 이공 계열에 대한 선호도와 맞물려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월부터 과학탐구대회 줄잇는다=과학 관련 행사는 4월 과학의 달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자료 조사나 실험을 거치려면 꼼꼼히 준비하는 게 알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홈페이지를 뒤적이며 미리 일정을 파악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교육부 주최로 열리는 학생과학발명품

■광주·전남 주요 과학경진대회 일정

대회명	광주	전남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4월 21일	5월 9일
과학전람회	5월 12일	5월 23일
청소년과학탐구대회	5월 27일, 6월 10일	6월 7~8일
과학탐구실험대회	6월 17일	6월 13일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대회	9월 6일	9월 1일

경진대회는 오는 7월 27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진행된다. 전국대회에 나설 광주지역 우수작 17작품을 선정하는 지역 대회는 다음달 21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5월 9일 지역 대회를 치른다.

과학전람회는 오는 8월 10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8개 분야(물리·화학·동물·식물·지구과학·산업 및 에너지·농림수산·환경)로 나뉘어 진행된다. 광주에서는 오는 5월 12일 지역 대회를 통해 전국 대회에 출품할 17개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5월 23일 과학교육원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5월 27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기계공학 ▲항공우주 ▲

과학토론 ▲융합과학 등 4개 종목으로 나뉘어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지역 대회를 열고 9월에 열리는 전국대회 진출팀을 초·중·고별로 선발한다. 전남에서는 6월 7~8일 초·중학교로 나뉘어 지역 대회가 치러진다.

학생과학탐구올림픽도 다음달부터 지역대회를 치른다.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은 ▲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고등학교 과학 탐구대회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대회로 나뉜다.

자연관찰탐구대회의 경우 오는 5월 20일 광주 지역 대회를 실시, 9월 전국대회에서 다른 지역 학생들과 겨울 초·중 각 3개팀을 뽑는다. 전남에서는 6월 지역 대회가 열린다.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는 다음달 15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지역 대회를 치르고 과학탐구실험대회 지역 대회는 6월 13일(전남), 17일(광주) 치러진다.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대회는 각각 9월 6일 광주 교육과학원, 9월 1일 전남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다. 광주교육청은 아울러 매주 금요일 오후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의도 마련했다.

◇발명컨셉에 발명대회도=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와 발명영재학급컨셉도 관련 일정을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우산·광전조, 중학교로는 신광·금당·송정중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발명초·중급 과정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대한민국 창의력 챔피언대회 광주 예선대회와 도전! 창의력 한마당도 열린다. 전남도과학교육원도 발명인재단 40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초·중급반과 상급반으로 나뉘며 초·중급반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중 3년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동강대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스마트 무인항공과 학생들이 드론 비행을 선보여 신입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서 와, 선생님 댄스 신고식은 처음이지?”

광주·전남 이색 입학식

최근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열린 입학식은 기존의 딱딱한 대신, 재미와 신입생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송우초 79명의 신입생들은 왕관을 쓰고 학부모들의 난타 공연 및 2학년 언니·오빠들이 들려주는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입학식장에 들어섰다. 6학년 선배들은 입학식 선물을 나눠줬다.

오정초 44명의 신입생들은 입학식날(2일), 윤선옥 교장이 토바또박 읽어주는 그림책 ‘괜찮아, 너 할 수 있어!’를 들으며 낮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냈다.

장성 진원동초 15명의 신입생들은 나무 한 그루를 입학 선물로 받았다. 6년 동안

함께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학교측 바람이 담긴 선물이다. 강경자 교장은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틀려도 괜찮아’라는 책을 들려주며 긴장을 풀어줬다. 광주 중흥초 신입생들도 화분 선물을 받았다.

고흥 점암중앙중 신입생 8명은 입학식 날(2일), 20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장을

받았다. 통장에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10만원씩 추가로 입금된다.

전남대사대부고는 엄한 교사들이 ‘깜짝’ 댄스 공연을 펼쳐 신입생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광주여대는 학교가 제작하고 디자인한 ‘갑사노트’를 입학 선물로 나눠주며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가꿔나갈 것을 주문했고 동강대는 입학식장에서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드론 비행을 선보여 신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전남 과학중점학교 1등급 단 1곳

광주·전남교육청이 운영중인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저조한 평가를 받아 이공계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부가 내놓은 ‘과학중점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7개 과학중점학교 중 광양백운고·상무고·조대여고가 지난해 평가 결과, 3등급을 받았다. 광주 보문고는 올 해부터 본격 운영되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와 광주·전남교육청은 전문성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중점학교를 지정하고 수학·과학 교육의 강화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다양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100개 과학중점학교를 대상으로 20%를 1등급, 60%를 2등급, 20%에 대해서 3등급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광양백운고와 조대여고는 2014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가 2015년 2등급, 지난해 3등급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취지를 감안하면 교육 과정 및 시설·환경,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상무고도 지난해 실시한 첫 평

■과학중점학교 운영성과 평가

학교명	등급		
	2014	2015	2016
광양백운고	1	2	3
상무고	-	-	3
여수고	3	1	1
조대여고	1	2	3
풍암고	-	-	2
해남고	2	2	2
해룡고	2	2	2

※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한정한 평가

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상무고는 지난 2015년부터 과학중점학교(학년당 2학급)를 운영해오고 있다.

전남 해남고와 해룡고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평가 결과, 모두 2등급을 받았고 광주 풍암고는 지난해 첫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의 2014~2016년 평가 결과, 등급이 상승한 학교는 여수고(2014년 3등급→2015년 2등급→2016년 1등급)가 유일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폭넓게 과학을 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중점과정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

봄 알리는 인문학의 향기



이진경 교수



신현준 교수



전진성 교수



권명아 교수

조선대 내일 첫 무료 강연

품격 높은 명사 특강을 무료로 들을 기회가 생겼다. 조선대는 인문학적 지식을 쌓는 인문학 콜로키움을 마련,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올 상반기 실시될 강연은 ‘장소, 기억, 운동’이라는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깊은 성찰과 사유의 시간을 제공,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줄 강사로는 이진경(서울과학기술대)·신현준(성공회대)·전진성(부산고대)·권명아(동아대) 교수 등이다.

이 교수는 오는 8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기억의 통치와

정치의 정치화’를 주제로 학생·시민들과 만난다.

신 교수는 4월 12일 ‘도시의 꼭 ‘재생’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전 교수는 5월 10일 ‘도시공간과 공공기억-통일독일 수도 베를린의 사례’를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권 교수는 6월 14일 ‘생존담과 이야기 생존학’을 주제로 청중들과 만난다.

한편, 조선대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조선 라이프 아카데미’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 운영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매 가 1억1천만

동구 수기동
상가 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차 완비

▶매가 1억4천
(웅 5천)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걸廊)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음식점,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

010-7384-7800 062-527-7600